

	문화재청 50년,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합니다		
報道資料 [2011.09.19.]	보도시점	배포 즉시	
	담당부서 (전화번호)	궁능문화재과 (042-481-4702/4704)	
	담당자 (e-mail)	이재순(ljs1363@ocp.go.kr) 강재훈(tf773@ocp.go.kr)	
「문화재청(www.cha.go.kr) 새소식, 국가유산종합정보서비스(www.heritage.go.kr)」에 동시게재			

문화재청 50주년 기념 궁·능 등 무료개방 및 궁궐 야간개방

문화재청(청장 김 찬)은 문화재청 50주년을 기념하여 궁·능 등 무료개방 및 궁궐 야간개방을 실시한다.

이번에 실시하는 무료개방은 4대궁(창덕궁 후원 제외) 종묘 조선왕릉 및 현충사에 대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, 기간은 4대궁 종묘는 오는 10월 2일, 조선왕릉 현충사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실시한다.

아울러, 무료개방과 함께 경복궁과 창경궁의 야간개방이 이어진다. 경복궁은 10월 5 ~ 9일간 광화문 흥례문 권역 및 근정전 수정전 경희루를, 창경궁은 10월 3 ~ 9일에 걸쳐 흥화문, 춘당지, 명정전 권역 등을 개방하며, 관람시간은 밤 10시까지이다.(입장은 밤 9시까지, 입장료는 주간과 동일)

경복궁 창경궁은 금년 상반기 야간개방 시 은은한 야간조명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밤 정취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어낸 바 있으며, 이번 야간개방을 통해 궁궐의 아름다운 초가을 밤의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.



< 경복궁 경회루 야경 >



< 창경궁 명정전에서 바라본 전경 >